

'전라도 방문의 해' ... 호남의 새 천년 역사 연다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에 이르기까지

2018년은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이다. 전북도, 전남도, 광주광역시가 지난 11월 10일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었다. 과거 전라도는 고려와 조선, 근대와 근대화 과정에서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왔고, 근대와 현대에 와서는 불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평화의 상징으로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열린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에서도 각 시도지사들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전라도 천년사업은 전북도와 전남도, 그리고 광주시가 전라도 천년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 비전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호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라도 방문의 해를 선포함에 따라 전라도 천년사업이 향후 3개 시도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일지 기대된다. 이에 본보는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해 있었던 D-1 기념식부터 선포식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지면에 걸쳐 담아본다.



▶전라도인 자긍심 제고 방안 논의...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

전북도와 전남도,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지난 10월 18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 KDN 빛가람홀에서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열고 "힘을 모아 새 천년의 역사를 열자"고 다짐했다.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이 되는 2018년을 1년 앞두고 마련된 이날 행사는 윤정현 광주시장,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지역민과 각계 전문가,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시도는 현재 전라도 천년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 비전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전라도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전라도 천년의 발자취' 새로운 천년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전라도 천년의 발자취' 특별전시 ▲전남도립국악단 축하공연 ▲약무호남 시무국가에 이어 기념식 순으로 펼쳐졌다. 기념식은 전라도 천년 특별영상 시청과 D-1년 선포식, 천년의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장이



3개 시도 '기념사업' 공동 추진 호남 정치 리더십 창출 등 논의 '미래 천년 관광 이끌 것' 선언 9개 분야 공동사업 추진키로

'전라도 역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했다. 또 '전라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주제로 꾸러진 좌담회에서는 심원술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성덕 전주대 교수, 최영태 전남대 교수, 유성기 동북아경제연구원장, 염미경 제주대 교수,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각 분야별에서 ▲전라도 역사 재정립으로 전라도인의 자긍심을 제고 ▲호남 정치의 새로운 리더십 창출 ▲전라도의 미래, 4차 산업혁명과 아시아경제권에서 해당 찾기 ▲연대와 협력의 열린 공동체 만들기 ▲전라도 천년문화를 담아 새로운 미래 창조 등 소주제 아래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정도 천년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개막

1개월 여 시간이 지나 11월 10일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가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시·도 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출향인사, 여행업계, 지자체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호남권 3개 시·도가 상호 협력해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전라도가 한국의 미래 천년 관광을 이끌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선포식은 천년스토리 강연과 비전영상 상영, 방문의 해 슬로건 퍼포먼스와 축하공연



으로 진행됐다. 선포식 후에는 세종문화회관 프라에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조형물 제막과 전라도 명품여행에 참가하는 전라도 탐사단 출정식을 가졌다. 비전영상에서는 전라도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친절과 정성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며, 지자체와 의회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공동선언을 천명했다. 공동선언에는 또 3개 시도와 시군구, 의회 모두가 지역관광산업을 선도사업으로 육성

해 전라도가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 환영사에서 시도지사들은 "전라도 삼형제가 모여 참여와 연대로 꿈을 완수해 가자"며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공동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하고 방문객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해 전라도 방문의 해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고 호남권 상생과 협력을 다짐했다. 향후 3개 시도는 전라도 여행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선을 선정, 명품여행상품과 스탬프투어 등을 통해 관광자원화 하고 ▲전라도 인문과 역사를 체험하는 청소년 문화대탐험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형 '전라도 아트&버스터빌'을 개최하는 등 9개 분야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도 천년 공식 엠블럼 공개

이어 3개 시도는 1월 1일 새해를 맞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시 행사'에서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엠블럼을 선정해 공식 선포했다. 공식 엠블럼은 '천년을 간직한 전라도, 3개 시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새로운 천년으로의 비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라도 천년기념 엠블럼은 앞으로 기념사업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생태·역사·문화 숨쉬는 '전북 1000리길'

전북도가 천혜의 자연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증진 추진하는 것과 연계해 전북만의 생태·역사·문화가 숨쉬는 '전북 1000리길'을 조성해 인문학적 힐링 관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전북 고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전북 자존의 시대에 걸맞는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시군별 '전북 1000리길'을 선정,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전북 1000리길은 그동안 도내 지역에 생태·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는 길 중에서 걷기 좋고, 전북의 생태·역사·문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전문가 및 시군의 추천을 받아 현장 답사와 '전북 1000리길'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전북 1000리은 총 14개 시군, 44개 노선, 405km로 해안, 강변, 산들, 호수의 4개 테마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1000리길 중 가장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접근성과 자원 연계성이 우수한 가장 걷기 좋은 14개소의 핵심 노선도 함께 선정하였다.

- 해안길, 고군산 구불길 등 6개
- 강변길, 순창 장군목길 등 6개
- 산들길, 지리산 둘레길 등 27개
- 호수길, 옥정호 마실길 등 5개

선정 유형을 보면 '해안길'은 고군산군도 비경과 변산반도 절경, 새만금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군산 고군산 구불길, 김제 새만금 바닷길, 부안 적벽강 노을길 등 6개 노선 55km이다. '강변길'은 금강, 섬진강 등 강 경관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길로 익산 합라산 둘레길, 무주 금강변 마실길, 순창 장군목길 등 6개 노선 84km이다. '산들길'은 산과 들의 경관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길로 전주 한옥마을 둘레길, 정읍 정읍사 오솔길, 남원 지리산 둘레길, 완주 고종시 마실길, 장수 방화동 생태길, 고창 운곡습지길 등 27개노선 223km, '호수길'은 옥정

호와 옥담댐 등 호수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길로 임실 옥정호 마실길, 진안 옥담댐 감동벼룻길 등 5개 노선 43km이다. 전북도는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전북 1000리길'을 중심으로 걷기봄 조성 및 길 디자인과 홍보·마케팅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도청 전 청원 및 유관기관 걷기행사, 전라도 정도천년 기념 걷기행사, 시군별 축제와 연계한 걷기행사, 민간단체와 연계한 길동호회 초청 걷기행사, 인적지자체 방문 걷기행사 등 다양하게 걷기 봄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노선 및 편의시설 정비, 회귀노선 개발, 안내체계 구축,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걷기 좋고 스토리가 있는 길로 전북 1000리길을 디자인화하고, GPS정보를 기반으로 통합 안내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전북 1000리길 홈페이지 구축, 주요 코스 관광상품 개발, 길 해설사 양성, 교통수단, 먹거리, 주변 관광지 연계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과 페이스북, SNS, 신문 방송 기획보도 등 전북 1000리길 집중 홍보·마케팅을 펼쳐 나간다. /김진성 기자

